



제도경제 브리프

Institution and Economy Brief
Current Issues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KIEA (사) 한국제도·경제학회

2021년 4월 12일, 제1호

Institution matters!

창간사 : 신제도경제학이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제학’을 견인한다!

이성규 (「제도와 경제」 편집위원장, 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현재 주류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현실 시장의 제도도 없고, 심지어 기업도 없는 ‘진공 속의 개인’만 있는 시장경제를 다루는 경제학이다. 사회의 문화, 전통, 이념과 정부규제의 행태와 법령 등 한국 기업의 시장규칙(rule of market)이 외국과 다름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고치려 하기 보다는 무조건 규제하면 된다는 ‘규범경제학적 발상’이 나오게 된다. 경제인들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제도, 즉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신제도경제학”(New Institutional Economics)의 도움 없이 경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이념과 문화 등의 비공식적 제도가 사상(死狀)되고 정치라는 제도 결정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사상되면서 주류 경제학의 현실과 괴리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념이나 문화, 이를 반영하는 정치가 모든 경제제도와 정책의 원천임에도 주류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이를 모른 척하고 ‘진공 속의 경제’만을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신제도경제학은 ‘실사구시(實事求是) 경제학’을 이끌 수 있는 최선의 대안(best alternative)이라 여겨진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연구 방향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진공 속의 모형’을 벗어나 “실사구시적 기반”위에서 경제학을 다시 써야 한다. 실사구시 경제학이 현

실에 기반하여 좌파, 우파 혹은 어떤 이념이 나의 성공이나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실증 과학적으로 증명 혹은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인류의 경제미래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의 중요 책무 중의 하나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이념적 주장들이 현실의 경제이치 또는 상식과 정합성(整合性)을 갖는지 여부를 실사구시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국민, 기업, 그리고 국민경제의 성공의 길을 찾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념이 이상적 시장이 아니라 ‘현실 시장’의 기능과 작동방식과 정합적인지 판별하는 것이 바로 ‘실사구시적 경제학’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신제도경제학이 어떤 이념과 문화, 어떤 정치철학과 정치가 개인의 번영과 국민경제의 번영을 가져오는지 규명해 낸다면 그동안 기존 경제학이 못 다한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제도경제학도 단지 ‘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넘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념과 문화, 정치체제)가 무엇을 위해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밝히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념 논쟁이 어느 나라 못지않게 극심한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주류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매몰된 한국경제학계도 보다 더 현실성 있는 경제학인 “신제도경제학”을 할 때가 되었다¹⁾.

1) 좌승희(2014), “신제도경제학이 현실과 괴리된 ‘진공 속의 경제학’을 살린다.”, 「제도와 경제」, 제8권 2호, pp. 7~14.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변화들로 인해 중대한 ‘제도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절실한 인식 하에 한국제도·경제학회는 **〈제도경제 브리프〉(Institution and Economy Brief)**를 창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신제도경제학의 올바른 학문적 수립’과 ‘제도 개혁 및 발전’을 위한 **지적 토론의 장(marketplace of ideas)**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제도·경제학회와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발전들을 이루어왔다:

- (1) 2018년부터 “한국제도·경제학술상” 도입
- (2) 2018년부터 학술지 연간 4회 발행
- (3) 2018년부터 학술지 매년 1회 ‘순수 영문판’ 발행
- (4) 2021년 4월부터 **〈제도경제 브리프〉** 발간

앞으로 **〈제도경제 브리프〉**는 (1) 신제도경제학 및 제도 개혁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2) 제도경제학자들의 사상 소개, (3)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흥미 있는 주제를 쉽게 서술한 글, (4) 회원 저서 소개, (5) 좋은 제도 소개, (6) 제도경제 관련 회원 에세이 등을 망라해서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회 회원들의 지식공동체 형성에 적지 않게 이바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도경제 브리프〉** 창간을 기념해서 본 학회 좌승희 이사장님께서 “새마을운동, 노벨상 감이다”를 기꺼이 투고해 주셨다. 좌이사장님의 기고에 감사 드립니다.

발행처 : (사)한국제도·경제학회

발행인 : 김승욱

편집책임자 : 이성규

편집위원 : 이상학, 김행범, 송정석, 김영신

연락처 : (휴) 010-9800-7211, (이메일) skl62@hanmail.net